

纖維・ 패션 産業의 비전과 發展戰略

2002. 8

産 業 資 源 部

목 차

1. 섬유·패션 산업의 위상	48
2. 세계 섬유·패션 산업의 발전전망	50
3. 세계 교역환경의 급변	51
4. 국내 섬유·패션 산업의 현주소	53
5. SWOT 분석	54
6. 섬유·패션 산업의 2010년 발전비전	55
7. 기본전략	56
8. 추진전략	57
I. 3대 전략분야의 집중 육성	58
II. 세계일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확충	61
III. 지역특화 산업의 집적화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64
IV. 화성·연방 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65
V. E-Business 선도를 위한 정보화 역량 강화	66
VI. 공역적 글로벌 마케팅 전개	67
9. 발전과제	69

1. 産業의 位相

■ 국내적으로는 국가경제 발전에 전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기간산업

- 섬유 생산액('01년 40조원)의 53%인 21조원(160억불)을 수출
- 무역수지가 매년 110억불 이상 흑자를 기록하는 효자산업
 - * 섬유류 무역수지(억불): ('90) 124 → ('95) 134 → ('00) 139 → ('01) 111
- 국내 총수출의 10.6%, 업체수의 18.5%, 고용의 14.9%, 생산액의 7.0% 차지

■ 국제적으로는 세계 4위의 섬유수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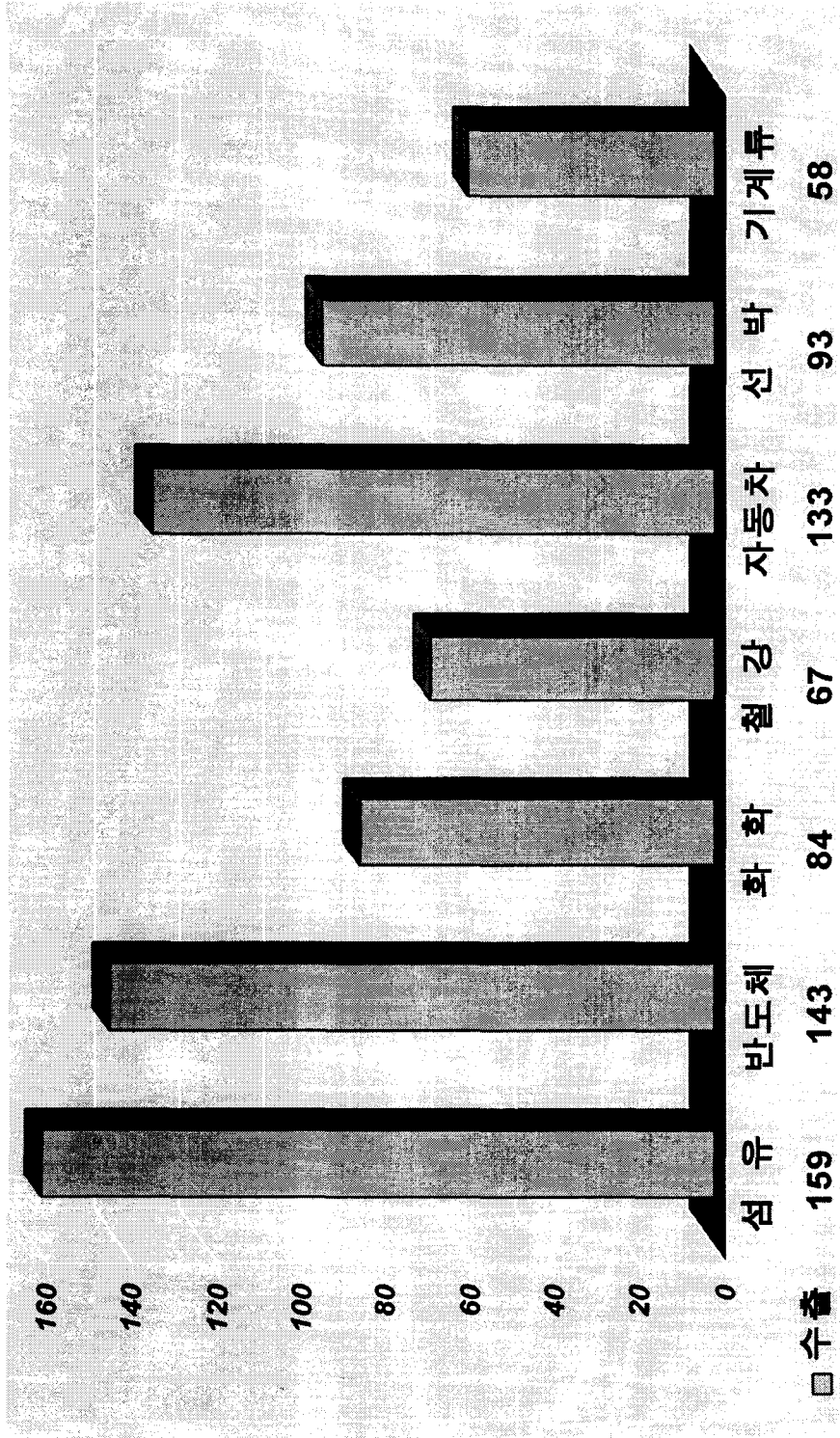
- 섬유수출 세계 4위(5.2% 점유), 화섬지물수출 세계 1위(16.9%)
- * 섬유수출 순위: 중국(25.2%), 이태리(7.1%), 미국(5.5%), 한국(5.2%), 독일(5.0%)

■ 국민의 의(衣)생활을 선도하는 주요 생활산업

- 패션·의류 업체 7,500개, 패션 Shop 20,000개 이상으로 전국적 유통망 구축
- 의류수출 52억불, 내수공급 19조원 등으로 국민 경제·생활에 기여효과가 큼

産業別輸出額比較 ('01년도)

단위: 억 불



2. 發展 展望

■ 옷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技術, 文化, 이미지를 접목시키는 知識産業

- 패션, 디자인, 기술, 마케팅, 정보화 등 무형자산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

■ 소득수준 향상과 Life style의 변화 등으로 세계 섬유수요는 지속 증가

- 세계시장 규모(만톤): ('00) 5,314 → ('05) 6,284 → ('10) 7,379 (연평균 3.3%)
- 한정된 천연섬유보다는 응용성이 높은 화학섬유 위주로 성장
 - * 세계 화학섬유 생산비중: ('00) 60.0% → ('05) 63.4% → ('10) 66.7%

■ 국제분업 및 무역자유화 등으로 세계 섬유교역의 지속 증가

- 교역규모(억불): ('00) 8,945 → ('05) 11,280 → ('10) 13,608 (연평균 4.3%)
- 수출규모(억불): ('00) 4,426 → ('05) 5,548 → ('10) 6,703 (연평균 4.2%)
- * 자료: PCI(Petrochemical Institute (영국, 2002)

■ Nano 섬유, Super 섬유 등의 개발로 기술혁신이 가속화

- 초극세섬유, 초기능섬유, 초고강도, 복합섬유, 인공지능섬유 등으로 기술개발을 시도

3. 世界 交易環境의 急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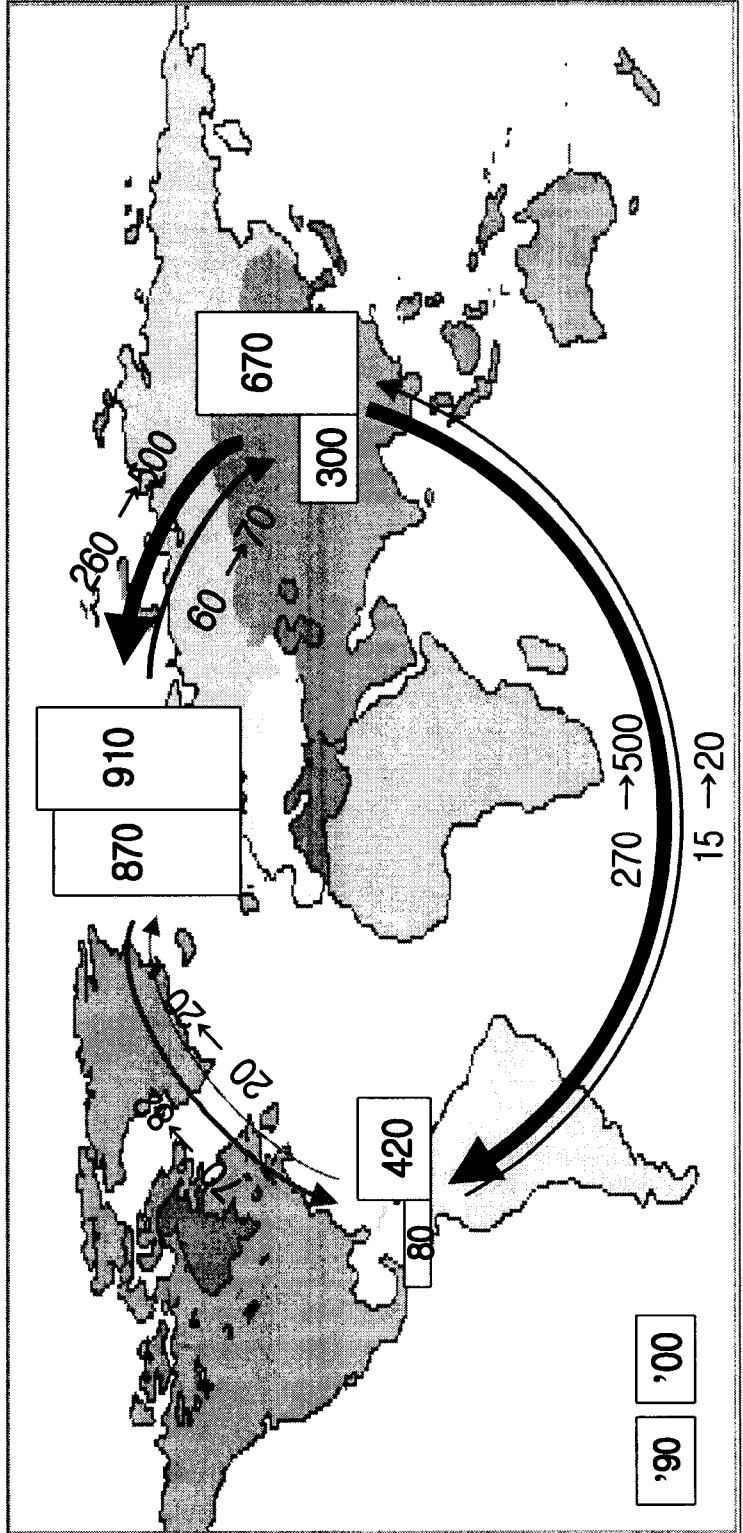
- 2년후 섬유쿼터의 전면 폐지
 - '95년부터 '04년까지 단계적인 GATT 복귀로 '05년부터 섬유교역의 완전자유화
- 중국의 WTO 가입('01.12)
 - 우리나라와 섬유교역이 늘어날 전망이다, 세계시장에서는 우리제품과의 경쟁이 심화
- 무역의 지역블터화와 FTA(자유무역협정) 확산
 - 미국은 NAFTA, CBI 등의 국가들에 대해 무관세·무쿼터 적용하는 등 지역블터화 심화
 - 세계 각국이 FTA 체결(관세인하)로 교역증진에 노력
- WTO 통일원산지 규정의 탄생
 - 금년말 타결될 전망, 무역제도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무역촉진 기여(원산지개정 필요)
- 환경규제가 새로운 교역장벽으로 부각
 - 유럽을 중심으로 한 에코라벨 인증(Öko-Text Standard)의 확산(발암성 물질 규제)

■ 국가간 분업생산의 가속화

- 고부가 제품은 국내생산, 저가품은 후발국에 글로벌 아웃소싱하는 이원화 전략 추진

■ 아시아가 대륙별 섬유교역의 중심축으로 부상

- 아시아 역내: ('90) 300억불 → ('00) 670억불 (연평균 8.4% 증가)
- 아시아 역외: ('90) 530억불 → ('00) 1,000억불 (연평균 6.6% 증가)



4. 國內 産業의 現住所

- '95년 이후 섬유수출의 성장세 둔화
 - 섬유수출은 '90~'95년간 연평균 4.76%, '95~'00년간은 0.09%
 - 화섬직물 수출감소가 주요인으로 작용 [화섬직물수출: ('95) 64억불 → ('00) 33억불]
-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비중 저조
 - 차별화제품 생산비중은 평균 20% 수준 (나일론 17.3%, PE 22.5%)
 - 선진국의 산업용섬유 생산비중이 60~70%에 비해 우리나라는 20%에 불과
- 핵심기술 및 패션·디자인 개발력이 취약
 - 전반적 기술수준은 선진국대비 80% 수준이나, 핵심기술 분야는 매우 낮음
 - 패션·디자인도 선진국 모방형 수준이며, 표준화·정보·인력등 관련 인프라도 취약
- 인건비 상승 및 인력부족 심화
 - '90년대 들어 급격한 인건비 증가: ('90~'95) 14.5% → ('95~'00) 6.1%
 - 고용인력은 39만명으로 전체제조업의 14.9%, 부족율은 7.1% (14천명)
- 급격한 해외투자로 국내산업의 공동화 우려
 - '01년 현재 1,920건에 1,770백만불 투자(90년 이후 급증, 주로 아시아지역 투자)

5. SWOT 分析

Strength (강점)

- **세계적 섬유류 공급기지**
 - 세계 4위 수출국, 화섬원료 100% 국내조달
- **기업정신과 지리적 우수성**
 - 독창적 감각이 우수한 국민성
 - 동북아 중심지의 지정학적 위치
- **선고한 IT기반과 정보력 우수**
 - 세계최강의 IT 기반의 섬유에의 적용
 -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력 우수

Opportunity (기회)

- **국가 이미지 상승의 활용**
 - 월드컵에 의한 국가이미지 상승
- **교역자유화로 수출증대 기대**
 - WTO에 의한 교역자유화, 중국의 WTO 가입
 - 국가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중대
- **아시아 시장의 기회 확대**
 - 아시아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
 - 동북아 시장의 급성장(교역증가)

Weakness (약점)

- **대량생산 및 공급과잉 지속**
 - 화섬과잉, 고부가 다품종 소량 생산 미비
- **기술 및 인력양성 취약**
 - 기술 및 디자인 개발에 대한 투자 미흡
 - 생산기술인력 부족심화, 섬유전공자 축소
- **산업용섬유 및 패션·디자인의 취약**
 - 산업용섬유의 기술 생산 취약
 - 유명 브랜드 및 디자이너 부족


Threat (위협)


- **원료(화섬)의 공급과잉**
 - 세계적 공급과잉, 국내기업의 경영악화
- **교역자유화로 시장경쟁 치열**
 - '05년 쿼터 폐지로 안정교역 저해
 - 중국의 급부상과 세계시장 잠식
- **선진국의 경제 불려화 및 환경규제**
 - 세계시장의 불려화 심화
 - 환경 교역장벽의 확산

6. 2010年發展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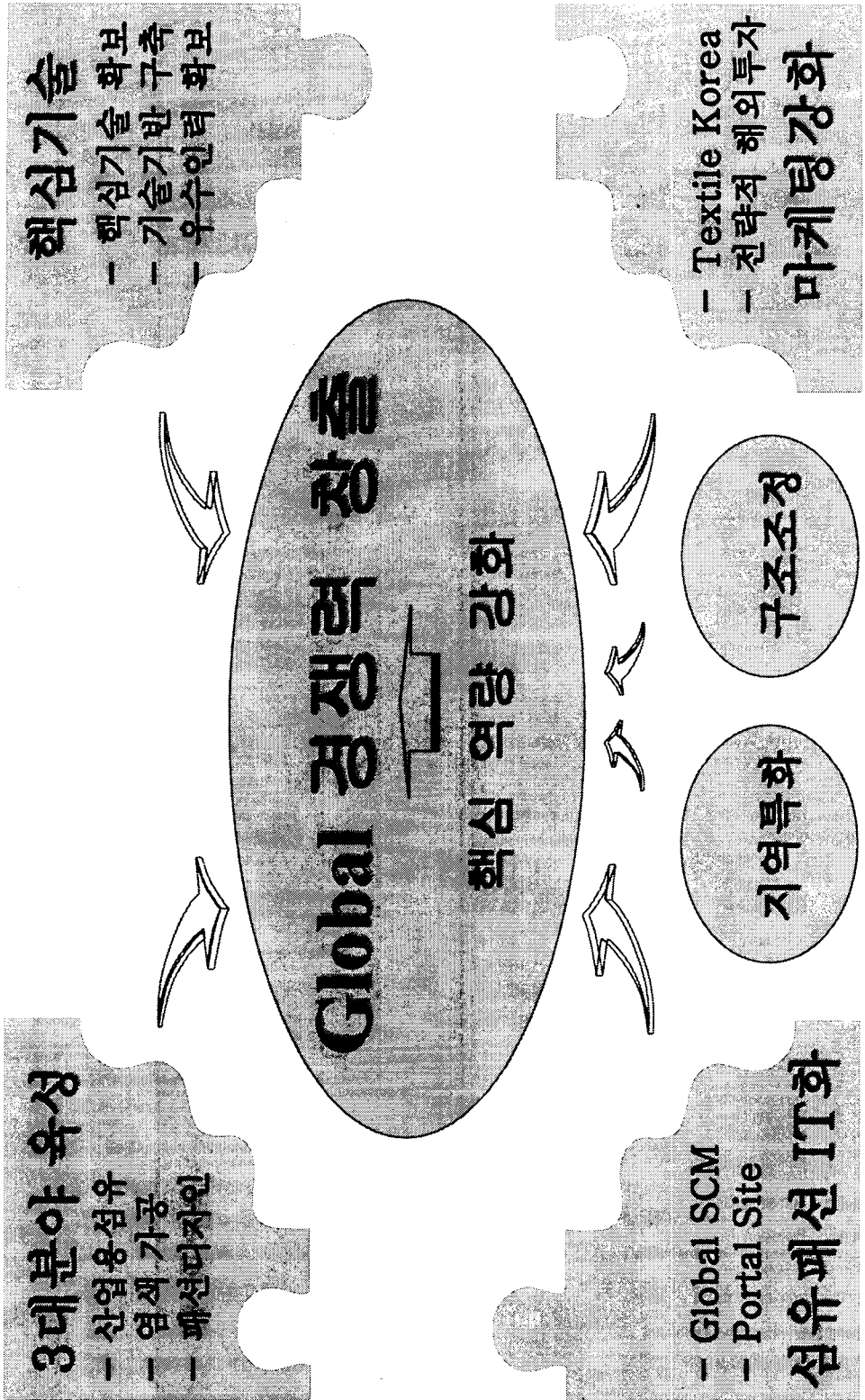
世界 3位의 尖端 纖維 · 패션 強國 實現

2010년 섬유수출 300억불, 후자 200억불 달성

- 
- 섬유수출: ('01) 159억불 → ('05) 200억불 → ('10) 300억불
 - 무역수지: ('01) 110억불 → ('05) 145억불 → ('10) 200억불
 - 세계비중: ('01) 4.3% → ('05) 4.6% → ('10) 5.6%

- 
- 세계 섬유 수출 순위: ('01) 세계 4위 → ('10) 세계 3위
 - 패션 · 의류 수출비중: ('01) 5% → ('10) 30%
 - 산업용섬유 생산비중: ('01) 22% → ('10) 50%

7. 基本 戰略



8. 推進 戰略

전략 I

3대 전략분야의 집중 육성

전략 II

세계일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확충

전략 III

지역 특화산업의 집적화로 시너지효과 극대화

전략 IV

화섬·면방 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전략 V

e-Business 선도를 위한 정보화 역량 강화

전략 VI

공격적 글로벌 마케팅 전개

3대 전략분야의 집중 육성

(1) 산업용섬유의 생산비중 확대

① 다양한 첨단 산업용섬유 원료의 개발

- 차세대 신기술개발사업으로 “Nano 섬유 개발” 추진('01~'09)
- 중소기업이 소량생산할 수 있는 산업용섬유의 개발 지원 (산화연공동개발)
 - 분자제어섬유, Fully extended 섬유, 고분자 액정섬유 등
- 해외 연구기관간 협력체제 구축으로 상호 호혜적인 유망 기술개발 유도

②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 인프라 구축

- 업계 기술지원을 위한 “산업용섬유기술연구센터” 설치 추진('01~'05)
- 신뢰성평가기반 구축사업의 추진 : ('02) 11개 → ('10) 80개 품목으로 확대
- 산업용섬유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추진(매년 50명씩 배출, 산기반조성사업)

③ 산업용섬유의 수출경쟁력 향상 추진

- 국제산업용섬유전시회 신설('02.11.30~11.2), 아시아중심 산업용섬유전시회로 육성
- 산업용섬유에 대한 세계 일류상품 발굴(매년 5개씩 이상)

(2) 염색가공 산업의 첨단화

① 첨단 염색가공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 지원

- PTT섬유에 대한 염색가공기술 개발 추진('01.9~'05.8)
- 복합가공, 기능성 가공, 감성가공 등의 실현으로 기술우위 확보(중기거점으로 지원)

② 염색공장의 완전 Digital화 확산

- 염색공장의 Color 관리, 물류관리, 공정관리 등을 On-line 처리
- 공정관리 기술개발, 자동화설비 도입, 정보화 추진, 우수사례 발굴·보급 등

③ 전문·기능인력 부족 해소

- 첨단염색가공기술인력양성사업 추진('99.5~'04.4)
- 염색관련 연구기관의 현장기능인력 양성: 350명/년 (생기원, 염색기술연구소)
- 해외 연수인력의 적정 배정: ('01) 1,885명 → (매년) 3,500명 유지

(3) 패션·디자인 산업의 활성화

- ① 「서울컬렉션 (Seoul Collection)」을 세계 5대 컬렉션으로 육성
 - SFAA, SIFAC 등의 컬렉션과 통합, 해외컬린더 등재, Buyer 초청행사 중심으로 추진
- ② 국제적 패션쇼를 개최할 수 있는 가칭 「서울 패션쇼장」 설치
 - 대중 패션쇼와 국제적 패션쇼 겸용 쇼장(2 000평, 부지 서울시, 건물 산자부)
- ③ 패션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지원
 - 서울 패션브랜드경진대회 개최 추진, 해외 마케팅전략 수립지원(생기력)
- ④ 패션·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 MD등 전문인력을 연 300명 양성 추진, 대한민국패션대전 수상자 연수 확대
- ⑤ 패션산업의 IT 접목 추진
 - 디지털디자인기반구축('01~'03), Web Color 시스템 구축('02~'06) 사업 추진
- ⑥ 패션·디자인 개발 및 정보제공 강화
 - 생기력향상: ('02) 12억→('03) 23억, 수출지원센터로 「패션리소스센터」 설치

세계일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확충

(1) 차별화된 첨단 핵심기술 개발

- ① 미래 첨단 핵심기술 확보
 - 차세대 Smart 섬유, 고성능 합섬 신섬유, 고차 구조형 복합 부직포 등 기술개발 지원
- ② 생산 응용기술의 극대화
 - 원료: 고감성 PE의 차별화기술, 환경친화신섬유 등
 - 염색: 환경친화적 염색기술, 일발염색기반기술 등
 - 폐선: 디자인기반기술, 인체보호 특수복, 디지털섬유제품 등
 - 기계: 첨단 섬유기계의 핵심 요소기술 개발 등
- ③ 섬유분야 Leading Company 발굴 및 지원
 - 2010년까지 100개의 Leading Company 발굴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신뢰성인증, 일류상품 선정 등의 지원 추진

(2)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구축

- ① 첨단 신섬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기술기반 구축
 - 신섬유에 대한 연구·개발을 전담할 「섬유 신소재 연구센터」 설치
 - 차별화된 실크신소재 개발을 위한 「실크신소재개발지원센터」 설치
- ② 표준화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기반구축
 - 인터넷상의 원활한 상품교역을 위한 「디지털섬유제품표준센터」 설치
- ③ 스포츠의류 개발을 위한 기반구축
 - 급증하고 있는 스포츠 의류등의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스포츠섬유연구센터」 설치
- ④ 중소 섬유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기반구축
 - 기술지도 인력의 Pool 구성, 기술지도 방법의 체계화 등을 추진
 - 섬유관련 개별업체에 대해 매년 100개 이상 기술지도 실시

(3) 생산·전문 인력의 원활한 공급

- ① 대학의 계열별 모집을 전공별 모집으로 환원토록 유도
 - 대학이 섬유패션학부(과)를 신설할 경우 정부의 정책사업 지원 강화
- ②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업계의 공동노력
 - 장학금 수여폭 확대, 예비졸업자에 대한 기업인턴제 실시, 현장실습의 확대
- ③ 분야별 전문 고급인력 양성
 - 섬유기술, 국제마케팅, 산업용섬유 등 고급 전문인력 양성 공급
 - 섬유패션 전문인력 양성: ('03) 638명 → ('05) 1,588명
- ④ 해외 연수인력의 적정인원 도입으로 단순인력 부족 해소
 - 연간 25,000명(섬유 고용인원의 6%)의 해외연수인력 확보 추진

지역 특화산업의 집적화로 시너지효과 극대화

- ① 부산지역 모직물진흥원 설치 등의 지역특화사업 지속 추진
 - 부산 모직물진흥원, 영주 섬유기술지원센터, 정기북부 염색가공기술센터 등
- ② 지역 특화사업에 대한 공동 협의체 구성·운영
 - 섬유패션지역특화육성위원회 구성, 특화사업간 협력방안 모색 등 추진
- ③ 동·남대문과 밀라노프로젝트의 연계
 - 동·남대문~밀라노발전협의회 구성, 두지역 업체의 1:1 협력 Unit 구성 추진
- ④ 사업추진기관의 자립화 유도
 - 업계 생산과 마찰이 없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수익사업 창출노력 유도
 - 업체수탁 파견 및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적극 수행
 - 해외 섬유연구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업계의 기술혁신 지원

화섬·면방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1) 화섬산업의 구조조정

① 업체수 축소 및 생산능력 감축 (Polyester F사) 촉진

- 노후시설의 폐기, 해외이전, 부실기업 정리 등 자율적 적정 생산량을 유지토록 유도
- 업체수: 13개 → 9개사로 축소, 생산능력: 1,700 → 1,450천톤/년 (15% 감축)

② 3개 분야별 특화생산 유도

- 잔존 9개사에 대한 3개 (차별화제품, 범용제품, 다품종소량) 분야로 생산특화 추진

(2) 면방산업의 구조조정

① 노후설비 감축 및 자동화를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 노후설비 감축: 1,250천추 (58.5%) → 890천추 (50.0%)
- 자동화를 제고: 45% → 60%

e-Business 선도를 위한 정보화 역량 강화

- ① 섬유산업의 신속대응시스템(QR) 구축
 - 표준상품 코드(KAN), 가격 Tag, 상품 DB, EDI(전자문서 표준) 등 제정
 - QR 확산을 위해 직물 및 의류 분야의 시범사업 추진중(직물 20개, 의류 150개)
- ② 지속적인 정보 인프라 확충을 위해 “Post QR” 추진
 - 생산, 무역 등에 이르는 과정을 On-line화하는 「섬유·패션 글로벌 SCM 구축」 추진
- ③ 섬유수출 지원을 위한 e-Portal Web-site 구축
 - 국내의 상품 및 기업 정보를 손쉽게 해외바이어가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④ 중소기업 IT화 지원
 - 개별기업이 생산 및 외주 관리 등을 포괄하는 ERP를 할 수 있도록 ASP 지원
- ⑤ 커뮤니티 구축과 교육으로 정보화 마인드 제고
 - 섬유업계의 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해 정보화 성공사례, SCM 확산 필요성 등을 교육

공격적 글로벌 마케팅 전개

(1) 수출 마케팅 활성화

① Textile Korea 추진

- 중국, 미국 등 주요시장 진출을 위한 「섬유·패션 종합전시회」 개최
- 중국에서 불고 있는 한류, 월드컵을 통한 국가이미지 상승 등을 기회로 활용

② 국제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 국제적 시각과 언어, 문화, 무역 등을 포괄하는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연 300명)

③ 국내의 전시회 지원사업 강화

- 국내 섬유관련전시회, 해외 유명섬유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

④ 해외마케팅정보센터 설치

- 해외시장 정보, 해외진출 사례 등의 마케팅 정보를 DB화하여 제공

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략수립 보급

-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 발굴, 수출시장별 마케팅 전략 등 수립

(2) 전력적 해외투자 유도

① 해외투자에 대한 전략적 접근

■ 해외투자 업체 및 관련기관 「섬유해외투자협의회」 구성 (섬산연내 설치)

- 전략적인 해외투자, 과당경쟁 방지 등을 도모

■ 저렴한 인건비 보다는 수출전진기지로서의 역할 제고 유도

- 해외투자에 대한 조사·분석사업 지원 (정책연구용역사업)

■ 해외투자업체와 국내업체간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 해외투자 업체에 대한 국산 원부자재의 원활한 공급체제 구축

② 미국, 이태리 등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투자전략 강구

■ 상품별, 지역별 해외투자 전략을 수립하여 수출전진기지로서의 투자 유도

■ 미국·중국등의 시장접근을 위해 중·남미, 베트남등 인접지역 투자방안 검토

9. 發展 課題

■ 차별화제품 생산을 위한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

- 이태리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살려 차별화된 제품생산으로 한차원 높은 경쟁력을 확보
- 우리나라도 업체마다 각각 다른 독립적 차별화제품 생산이 미래 경쟁력의 원천
- * 일본의 경우 변화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아 침체의 길로 들어섬

■ 창조적 (Creative) 기업문화 형성

- 신상품을 출시할 경우 1~3개월 내에 타기업이 Copy하는 지적재산권 침해가 일상화
- 기업의 창조적 노력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업계 스스로 기업문화 형성에 노력

■ 첨단 신섬유 개발을 통한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 구축

- 기술개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선진국에 비해 기술수준이 매우 저조
- 다양한 응용기술 개발, 기업간 협업 등으로 차별화에 의한 다품종 소량생산 필요

■ 미래를 생각하는 e-Business 기반 구축

- 미국 QR의 경우 생산·유통기간 단축 등으로 Quick Response를 실현하여 산업구조 혁신
- 세계 최강의 국내 IT 기반을 활용해 세계 정보화를 선도하여 전자무역의 기득권 확보